

책체높임법의 ‘습’에 대한 검토

김 동 식*

1. 들어가는 말

15세기 국어에서 높임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선어말어미 ‘습’은¹⁾ 당시의 높임법을 연구한 논의들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²⁾ 이는 이 형태가 근대국어 이후로 들어오면서 가장 심하게 연결위치 이동을 겪었으며³⁾ 그 이전과는 아주 다른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인 듯하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필자 나름대로 종합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습’이 높이는 어미인지 낮추는 어미인지의 문제, 둘째, 높이든 낮추든 ‘무엇 때문에’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무엇’에 대한 문제⁴⁾, 마지막으로 둘째번의 ‘무엇’과 대비되는 대상의

* 국어국문학과 조교

- 1) 접미사, 선어말어미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파생시키지 않고 어말어미와 연결되며, 다른 어미와 위치이동(특히 ‘시’의 경우)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선어말어미가 더 적당하리라 생각되어 이 용어를 쓰기로 한다. 또한 존대법, 경어법, 높임법 중에서는 높임법을 쓴다. 여기의 ‘습’은 여러 변이형태를 대표한다.
- 2) 김형규(1947)이후 허웅(1954)의 논의가 이의 기폭제 역할을 한 듯하다. 이후 논의의 순서로 보면 김형규(1960), 안병희(1961), 허웅(1962), 이승녕(1962), 허웅(1963) 등으로 이어진다.
- 3) 여기서 가장 심한 위치이동이란 ‘시’의 경우에는 단지 다른 선어말어미와 자리바꿈만을 했지만 ‘습’은 어간에 제일 먼저 연결되던 것이 어말어미와 직접 연결되게 된 것을 말한다.
- 4) 김형규(1947)은 이때 ‘무엇’을 대화의 상대로 파악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피한다.

문제가 그것이다.⁵⁾

첫째 문제에 관하여서는 결양과 높임이 대비된다. 결양은 화자가 주체의 높임법상의 위치가 다른 대비되는 것보다 낮다고 판단할 때 주체를 낮춘다는 것이며, 높임은 어떤 대상에 대해 화자가 높임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화자의 판단'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여기서 그 대비되는 대상이 같다면, 전체 체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이 둘은 얼마든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⁶⁾

둘째, 무엇보다도 이 '습'이 쓰였느냐 하는 것이다. 결양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에서 '습'을 높임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제일 먼저 문제삼은 점이 이것인 듯하다. 곧, '습'은 '무엇 때문에'의 무엇이 아주 막연한 것처럼 보이므로 높인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막연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높임으로 보는 데서는 문장내부에서 이를 찾으려 노력해 왔다. 하여튼 만일 이 '무엇'이 확실히 찾아진다면 '습'이 높임이든 결양이든 '무엇 때문에'의 무엇이 합쳐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앞절의 '무엇'에 대비되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주체, 화자, 주체와 화자'의 셋으로 견해가 갈린다.

이처럼 아직도 서기 15세기 높임법의 한 형태인 '습'에 대한 파악이 서로 다른 것은 높임법의 기본 성격을 일반적인 한 통사현상으로 전제 한 상태에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실상 높임법은 화용과 통사의 양끝을 잡고 있는 경계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화용에 관계된 것은 통사적으로 객관성있게 기술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높임법도 그 성격으

5) 이익섭(1974)은 높임법의 기본요건을 '누가, 누구를, 누구와 대비하여'의 세가지로 파악하였다. 이 글에서 '누구' 대신 '무엇'이라고 쓴 것은 일단 통사적인 범주까지 포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6) 안병희(1961)에서는 하나를 높이는 것은 하나를 낮추게 된다는 이른바 시이소오식 설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하였다. 이는 높임법 전체체계를 생각할 때 제기되는 문제인 듯하다. 그러나 단지 단 두항 사이의 관계물인 급할 때는 시이소오의 비유는 부분적인 설명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로 보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듯한데, 문제는 이들이 통사적인 모습, 곧, 분명한 어휘형태를 갖는 것으로 표현되는 듯한 점이다.

따라서 본고는 높임법의 성격을 구명하고 그 기반위에서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습'이 쓰이는 상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습'의 올바른 파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2. 높임법의 성격

높임법의 성격을 세밀히 살피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통사적인 것과 화용적인 것의 구분일 것이다. 필자는 이들의 차이를 크게 문법성과 의미 유지의 면, 둘로 파악한다. 어떠한 현상이 통사적인 것이라면, 그것에 쓰인 어휘형태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쓰이지 않을 때 우선 문법성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 문법성의 차이는 통합되는 다른 요소들의 내재적 자질에 의해 형태의 선택이 결정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때, 쓰였을 경우와 그밖의 경우 중 어느 한쪽은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반면 그 반대쪽의 쌍은 일반적으로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낸다. 만일 어느 한쪽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 않고 둘다 문법적일 경우에는 원래의 문장이 갖는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그러나 한 어휘형태의 쓰임이 화용적인 것이라면 위와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두 문장은 모두 문법적이고 의미가 같으며 단지 그 쓰이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⁷⁾ 이를 토대로 하고 높임법의 자료들을 보기로 하자.

(1) 가. 훈하늬 懂英이 菩薩의 문즈보더(月釋 2, 11)

나. 王이...臣下드려 무르샤더(釋詳 11, 21)

다. 爲頭 도즈기 무로더(月釋 10, 28)

7) 여기서는 높임법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므로 '습'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높임의 형태도 같이 취급하기로 한다.

보기 (1, 가, 나, 다)는 동사가 ‘물즈보다—무르샤티—무로티’로 작기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도 모두 쓰이는 문장이기 때문에, 만일 이들의 의미가 다르다면 ‘습, 시, ϕ’ 등이 통사적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높임법의 자료들은 이러한 파악이 불가능함을 나타내 준다. 이제 그 자료들을 차례대로 살펴 보자. 먼저 높임법의 어휘형태의 쓰임이 통합되는 다른 요소들의 내재적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님은 다음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가. 訶菩薩이 王₂의야 겨샤(月釋 1, 5)

나. 菩薩이…能히 諸佛의 물즈바 듣즈바면(釋詳 13, 21)

(3) 가. 王도 어디르시며 夫人도 어디르시고(月釋 2, 12)

나. 摩竭國은 王이 正티 묻호고(月釋 2, 10)

(4) 가. 이엇던 神靈入德이시관대 내 시르를 누기시논고(月釋 21, 21)

나. 緊那羅는…놀여브르논 神靈이니…다 能히 놀어로 브르습느니라(月釋 1, 15)

(5) 가. 太子를 請호스바 이반즈보려 호노닛가(釋詳 6, 16)

나. 太子ㅣ 닐오티 얻논 藥이 브스것고(月釋 21, 215)

보기(2—5)의 문장들은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 3, 4)의 (가)는 ‘시’가 쓰이고 (나)는 쓰이지 않았다. 또한 이들에서 높임 이외의 다른 차이는 발견하기 힘들다. 이점(5, 가)에서는 太子가 높여지고(5, 나)에서는 높여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일, ‘시, 습’이 통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이들이 통합되는 요소의 내재적 자질에 의해 갈리는 것이라면 위 보기들에서 (가) 혹은 (나) 둘 중에 하나는 비문법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높임법의 어휘형태는 통합되는 요소의 내재적 자질에 의하지 않고 그 요소가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느냐에 의해 쓰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높임은 통사적 자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자질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위 보기들에서 ‘菩薩, 王, 神靈, 太子’는 그 지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시대상이 같다고 하더라도 높임법 형태의 쓰임이 다른 문장들을 많이 볼 수 있다.

(6) 부배 羅雲이 드려 니르샤티 부터 맛나미 어러보며 法드로미 어러 보니(月釋 6, 10)

(7) 가. 目連이…入定하야 퍼엿던 불홀 구필 쓰시에 迦毗羅國에 가아 淨飯王의 安否숭더니(釋詳 6, 2)

나. 目連이 드려 니르샤티 도라가 世尊의 내 브들 퍼아 슬복쇼서(釋詳 6, 6)

(8) 가. 比丘 | 對答하수보티 大王하…다시 오수보이다(月釋 8, 92)

나. 王이 니르샤티 이 比丘 | …이제 쏘 내모물 드려다가 維那를 사모려 하실씨 들좁고 깃거하거니와(月釋 8, 93)

‘부터’는 월인석보에서 거의 절대적인 높임의 대상이다. 그러나 보기 (6)에서는 ‘맛나미, 드로미’ 등으로 전혀 높임법 형태가 쓰이지 않았다 이는 이때의 부처가 화자 자신이기 때문인데, 이처럼 지시대상은 같아도 상황에 따라 높임법의 쓰임은 달라지는 것이다. 보기 (7)은 오히려 그 반대현상을 보인다. (가)로 볼 때 目連은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나)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耶輸가 오히려 目連을 높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상황이 문제된다. (8)에서는 比丘와 王이 대화에서 서로 높이고 있다. 이처럼 높임법 형태의 쓰임은 지시대상의 내적인 높임자 질에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높임법 형태의 쓰임 여부는 또한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아래의 문장은 완전히 지시대상이 같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도 높임법 형태가 쓰이기도 하고 안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9) 가. 比丘 | 對答호티 梵摩羅國 林淨寺에 겨신 光有聖人 스弟子 | 로니(月釋 8, 91)

나. 比丘 | 對答 ㅎ수보디 大王하 엇더 나뉠 모릅시느니잇고(月釋 8, 92)

보기(9)의 상황은 비구와 왕이 만나 대화하는 똑 같은 상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9, 가)는 맨처음의 장면이고 (9, 나)는 다시 왔을 때인 것뿐이다. 이는 높임법 형태의 쓰임여부가 상황 이외에도 화자의 판단에 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이점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또 한가지는 완전히 같은 상황을 기술하는 데도 책에 따라 높임법 형태의 쓰임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10) 가. 乳汁이 이베 드르샤 世界드리치니 고지프고 여름 여수분니
(月曲, 其 413; 月釋 21, 2)

나. 두저지 소사나아 如來스 이베가 들어늘 摩耶 | 깃저 ㅎ시니
大千世界 드리치고 時節아닌 곳도 프여 여름도 여러 너더라
(釋詳 11, 2; 月釋 21, 6)

(11) 가. 第一夫人이 太子를 나쓰분시니...大臣이 모더라 德을 새오수
바 업스시디 씨를 ㅎ더니(月曲, 其 425, 6; 月釋 21, 211)

나. 第一夫人이 아드를 나ㅎ시니...여섯 大臣이 힘더기 윈돌제아
라 太子를 새와 미여 ㅎ더라(月釋 21, 214)

보기(10, 11)에서 (가)는 운문식으로 쓰여진 월인천강지곡의 문장이고 (나)는 그와같은 사실을 기술한 석보상절의 모습이다.⁸⁾ 여기에서 같은 사실을 표현하면서도 그 사실을 표현하는 화자의 태도 혹은 판단에 의해 높임법 형태의 쓰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가 나타내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높임이란 자질이 처음부터 어휘에 내재해 있지 않으며⁹⁾, 상황이나 상대, 화자의 태

8) (가, 나)가 같이 한 책인 월인석보에 수록되어 있으나 원래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거의 달리 바꾸지 않고 합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월인석보는 두가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9) 선어말어미에 의해 동사에 나타나는 높임의 형태 이외에 어휘자체에 높임의 자질을 내재하고 있는 형태는 여기서는 논의로 한다. 이들은 ‘시, 습’ 등과는 달리 파생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에 좌우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곧, 높임법은 통사적인 것이 아니라 화용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습’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3. ‘습’에 관계된 조건들의 검토

3.1. 비교 대상

화자는 ‘습’ 뿐 아니라 ‘시, 이’ 등 높임법의 다른 형태들의 용법까지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아니 다른 조건까지 관계된 듯한 ‘습’에서 보더라도 ‘시, 이’에서는 거의 절대적 역할을 한다. 우선, 주체를 높이든가 이야기의 상대를 높이든가 높이려는 의향은 화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때의 비교 대상도 역시 화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자의 역할은 ‘습’의 쓰임에서도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듯하다. ‘습’을 주체와 객체간의 대비관계로만 파악하려 했던 이익섭(1974)에서도 화자의 높이려는 의향은 자명한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화자의 역할이 단지 높이려는 의향에만 그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지 않다. 허웅의 일련의 논의들에서는 화자가 곧 높이려는 대상과 대비되는 인물이며 이것만이 ‘습’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이익섭(1974)는 화자는 높이려는 의향을 갖는 데서만 ‘습’의 사용에 관계할 뿐, 높이려는 대상과 대비되는 인물은 주체일 뿐이라고 한다. 이들의 중도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안병희(1982)는 ‘습’의 쓰임에서 높이려는 대상과 대비되는 인물은 화자와 주체 모두라고 하였다.

이제 이들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습’의 쓰임에는 화자가 관계없다는 논의를 본다.

(12) 孝道_홀 子息_의의 어버시_{겸교모} 居_홀실 저그란 恭敬_을 가장_홀며

후속오도란 줄거우샤를 가장 하며(內訓 1, 16)

여기에서 이익섭(1974: 52)은 이글의 객체는 일반 뭇뭇부여서 화자(소헌왕후)보다 존귀한 인물이라고 하기 어려운 데도 객체높임법이 쓰였으므로 객체높임법이 주체-객체의 대비에서만 쓰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안병희(1982: 18)의 비판은 이때의 부모가 화자를 포함하여 효도할 모든 사람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는 화자의 기준에서도 상위자로 대우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1974)에서 말한 바 전제인 화자의 높이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있다. 만일 화자의 높이려는 의도가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뛰어넘어,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위의 예는 구태여 안(1982)의 비판이 없어도 당연히 화자도 비교 대상이 된다. 그러나 화자의 높이려는 의도가(‘대접해주겠다는 뜻’) 화자가 자신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높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위의 예는 ‘이’의 판단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 그가 중세국어의 주체, 상대높임법의 예를 들지 않아서 어떤 예를 들기는 곤란하지만, 위와같이 처리할 경우 ‘시, 이’는 구태여 ‘화자와의 대비’가 필요없다. 왜냐하면 화자와 대비되어 높지 않아도 화자가 ‘대접해 주겠다’는 뜻만 갖고 있으면 주체, 상대높임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체만이 비교 대상이 된다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의 예에서 정말로 화자의 높임의 의향이 없어도 주체와 객체만이 대비되어서 쓰이는 듯한 ‘습’을 본다.

(13) 須遠이 깃거 太子의가 솔보티...太子] 우스며 널오티(釋詳 6, 24)

여기에서 ‘태자’는 적어도 ‘널오티’로 보면 화자에게는 높임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¹⁰⁾ 그런데도 수달의 동작에 ‘솔보티’가 쓰여 태자

10) 안병희(1982)는 높임과 안높임의 차이로 ‘니르티’와 ‘니르샤티’를 대비시킨다.

를 높이는 듯하다. 이는 수달 즉, 주체의 높임의 의향만이 관계되는 듯한 좋은 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다음 예도 같이 갖고 있다.

(14) 가. 이튿 나래 나라해이서 도즈기 자최 바다 가아 그 菩薩을 자
바 남기 모물 脍수바 뒷더니(月釋 1, 6)

이 예에서는 오히려 화자의 보살에 대한 높임의 의향만이 작용하고 주체인 ‘나라’는 전혀 높임의 의향을 찾아 볼 수 없는 듯하다. 이때 우리는 이 글 내부의 인물들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즉, 이러한 반대현상은 화자의 판단에 의해 설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화자—객체’나 ‘주체—객체’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달이나 태자는 인용된 책의 기반인 불교에 호의적인 사람으로서 화자가 그들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며 ‘나라’는 ‘보살’(뒤에 석가모니)에 대항하는, 혹은 불이익을 주는 반동인물로서 화자로서는 그의 의도를 존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이 곧 높임법에 작용하는 화자의 영향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점이라 생각한다.

다음에 화자—객체, 주체—객체의 두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기로 하자. 이때 의문은 이 두축이 동일평면에 있는 것인가 서로 다른 기반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동일평면 위에 있는 것이라면 객체가 화자나 주체보다 높아야만 ‘습’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화자보다 객관적으로 높지 않아도 주체보다 객체가 높으면 ‘습’이 쓰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위 예(13)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기준은 같은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높임법의 맨처음 출발점을 생각해 보자. 높임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화자의 높임의 의향이 최우선이다(허웅, 1963).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객체높임법은 화자보다 객체가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이 대우해 주는 것’과, 주체보다 객체가 높은 것이 아니라 ‘주체보다

객체를 높이 대우해 주는 것'의 두축이어야 한다. 이말은 그냥 높다는 것과 거리가 있다. 그냥 높다고 한다면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높임법의 일반적인 주체와는 다르다)가 있기 때문에 그의 주관에 도입해야 한다. 곧, 화자보다 높지 않은 듯한 객체를 왜 화자가 높이 대우해 주게 되는가는 완전히 화자의 상황에 대한 주관에 의해 좌우된다. 화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기술하느냐에 따라 자기보다 낮은 객체를 높이 대우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점도 결국은 높임법의 본질과 관계가 있다.

(14) 나. 오직 魔王이 世尊의 슬보티 瞿曇아 나는 一切衆生이 다 부배
 2외야 衆生이 업거사 菩提心을 發호리라 3너라(釋詳 6, 46)
 위의 예(14, 나)는 화자의 주관에 의해 주체가 생각했던 높낮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슬보티'에 나타난 것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적어도 같거나 마왕이 높은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객체가 주체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화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임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면 객체높임법은 (1) 화자가 자기나 주체보다 객체가 높다고 판단할 때, (2) 객체가 주체보다 높고, 화자보다 낮거나 동등하더라도 객체를 높게 대우해 줄 때 동사에 '습'을 연결하여 쓰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4장 참조).

3.2. 높임의 대상

여기서 높임의 대상이란 말을 썼지만 다른 논의를 참작하여 엄밀히 따진다면 꼭 높임의 대상이라 할 수만도 없다. 객체높임법이 아니라(주체)겸양법이라 한다면 겸양법을 쓰게 만드는 '상대가 되는 인물'이란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일단은 이를 '객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자. 즉, 둘을 합쳐 '습'을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의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체란 말을

처음 쓴 것은 허웅(1954)인 듯하다. 여기서 그는 언어의 존재조건을 말(주어+객어+용언) '언주' → '상대'로 도식화하고 주어에 대한 주체존대, 객어에 대한 객체존대, 상대에 대한 상대존대라는 말을 씀으로써 처음으로 객체를 언급하였으며, 객어를 주로 목적어, 여격어라 규정하였다(허웅, 1954 : 143)¹¹⁾ 이후 안병희(1961)에서 객어, 객체의 무용을 말하였으나 안병희(1982)에서는 또 다시 객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허웅은 '객체'라는 용어를 계속 쓰기는 하였지만, 객체라는 용어는 쓸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허웅(1975)의 '객체' 개념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에 의하면 객체는 부립말(목적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위치말(처격어), 견중말(비교격어)로 나타나며 행동이나 상태의 '상대'도 역시 위치말의 범주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림씨나 '—이다'에 '습'이 연결되는 것도 객체가 위치말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허웅, 1975 : 696—706).¹²⁾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문은 객체가 그렇게 문법범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것이다. 물론 그의 출발점이 말(혹은 문장 : 필자)을 '주어+객어+용언'으로 나누는 것이었던 만큼 말안에서만 찾으려 한 것은 이해되나 높임법의 다른 경우 특히 상대높임법을 보면 객체를 말 내부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상대높임법은 별이견없이 화자와 상대의 관계다. 이는 곧 비록 말 내부에 표시되기는 하나 그를 규정하는 상황은 말의 외부에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앞서 말했듯 높임법은 그 기반이 문법적인 것이 아니다. 문법은 우선 객관적이다. 여기에서는 화자가 누구든, 상대가 누구든 규칙을 어기면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높임법은 화자나 주체 혹은 객체 그리고 상대에 따라 항상 다르다. 그리고 이때는 규칙이 객관적인

11) 이후 이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병희(1961)에서 지적된 까닭에 허웅(1962)에서는 이러한 문법용어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허웅(1975)에서는 다시 이러한 용어로 설명하였다.

12)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가 맨처음 썼던 도표는 없다. 이는 말을 '주어+객어+용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인정한 때문인 듯하다.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일 뿐이다.

(15) 가. 乳汁이 이베 드르샤 世界 드러치니 고지프고 여름여수하니
(月釋 21, 2)

나. 두저지 소사 나아 如來스 이베가 들어늘 摩耶ㅣ 깃거하시니
大千世界 드러치고 時節아닌 곳도 프며 여름도 여러 닉더라
(釋詳 11, 2)

만일 높임법의 규칙이 어김없는 객관성을 갖고 있다면 위 예 사이에 다름이 있는 것을 설명하기 힘들다. 즉, 위 두 예 중 어느 한쪽이 잘못스런 것이거나 비문법적이든가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위 두 예 중 어느 한쪽도 잘 못되지 않은 것임을 나타내 준다. 그렇다면 이때 객체에 대한 판단도 둘이 다름을 보인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느 말에서 객체를 규정하는 것은 문장 밖 곧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있는 것이다. 이는 주체의 파악에서도 간접적인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16) 가. 佛은 부베시니라 爲는 드외야 겨실씨라...佛은 노곡신 부니
시니라 하는 쓰더라(釋詳序, 1)

나. 迹은 처섬으로써 모츨니르리 하산 물윗이리라(釋詳序, 5)

다. 放은 펄씨라 (큰 威光을 펄샤)(釋詳序, 6)

만일 앞 예들처럼 ‘爲, 尊, 迹’을 ‘시’를 써서 높인다면, 그리고 이것이 어김없는 객관성을 갖고 있다면 ‘放’도 역시 ‘펄씨라’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듯 ‘放’은 ‘펄씨라’로 되어 있다. 이 점에서 주체도 ‘주어에 호응되는 인물’이라기 보다는 ‘주어에 관계 있는 인물’ 혹은 ‘동작이나 상태의 주인공이라고 화자가 판단하는 인물’ 정도가 오히려 나올지도 모른다.

다시 객체로 돌아가 보자. 위 예(16)에서 보듯 객체도 화자의 판단에 좌우된다. 만일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에 관계가 있고 존귀한 인물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 인물을 높여 동사에 ‘습’이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경우라도 화자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 인물은 아무리 존귀한 인물이라 해도 ‘습’을 쓰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면 객체는 ‘화자가 동작이나 상태에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인물’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습’의 사용에 관계된 조건들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존귀한 인물과 비교가 되는 대상이나 객체, 나아가 주체의 규정에까지 화자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높임법이란 기본적으로 화자의 상황에 따른 판단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라 할 만하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화자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 높임법을 결정하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 ‘습’ 사용의 상황

위에서 우리는 높임법은 다른 무엇보다도 화자의 판단에 의해 규정될 것을 보았다. 이 화자의 판단은 물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알기는 힘들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는 한다. 위에서 ‘습’의 사용의 두축은 실은 전혀 다른 혹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같이 ‘습’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장에서는 이 두축을 화자의 서술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화자의 판단은 비단 높임법의 쓰임에서 인물들간의 높낮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화자는 항상 그가 기술하는 상황에 등장되는 인물들과 그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화자와 인물들과의 거리란 관계되는 정도를 말함이다. 즉, 객관적으로는 같은 높이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와는 별로 관계없는 위치에 놓이는가에 대한 판단이 그것이다. 이때 높임법의 사용여부와 방식은 이 거리에 좌우된다.

(17) 그 나랏 六師] 듣고 王의 술보티...王이 須達이 불러 널오티(釋

詳 6, 26)

위 예문에서 왕은 ‘닐오티’로 보아서 화자로서 높임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육사가 ‘솔보티’로 되어 왕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일반적으로 ‘솔보티’가 쓰이려면 화자가 객체를 높이려는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습’사용의 일차적 기준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예문 (17)을 설명하자면 왜 자기보다 높지 않은데도 높이려는 의향을 갖는가 하는 것이 풀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에서 우리가 말한 ‘화자와 인물들간의 거리’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육사나 왕은 화자와 그리 큰 관련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이들은 불교서적인 석보상절의 주인공들과는 무관한 주변인물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설명은 시작된다. 즉, 이럴 때는 화자는 객관적인 거리를 가지면서 단지 육사와 왕의 관계만을 문제삼는 것이다. 말일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둘 다 높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王의 솔보티’가 아니라 ‘王의 니르티’ 혹은 ‘王드려 니르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화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둘 다 높일 필요가 없으므로, 둘의 관계를 중립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18) 迦尸王이 안담쎌 慙心을 니르와다 두어 사툼 더불오 더 나라 해
가려 호거늘 臣下들히 말이다가 묻호엿더니(月釋 7, 16)

(19) 그저리 호 大臣 優婆言이 諸王의 니오티...호시논고 호야논(釋詳
23, 54)

결국 예문(17)과 (18, 19)의 차이는 화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문장의 주체가 그 객체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대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둘 다 높지 않게 대우하는가의 차이이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더 많은 예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20) 가. 이툼 나래 나라해이서 도즈기 꾀최 바다가아 그 菩薩을 자
바 남기모들 께수바 뵈더니(月釋 1, 6)

나. 오직 魔王이 世尊의 솔보티 瞿曇아 나는 一切衆生이 다 부

베 드의야 衆生이 업거사 菩提心을 發호리라(釋詳 6, 46)

(20, 가. 나)는 대화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위치로 본다면 보살보다 나라, 구담보다 마왕이 더 높다. 만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면 ‘베수바, 솔보티’는 ‘베여, 니르티’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보살과 구담(모두 석가)은 불교에서 절대적으로 높여야 하는 존재이다. 화자도 역시 불교를 숭상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완전히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승양받을 인물을 높이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일단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는 자기와 관계깊은 인물일 때 주관적 판단을 깊이 개입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 좀더 객관적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이러한 기준을 좀 더 깊게 살펴보기로 하자

(21) 善慧드르시고 츠기너겨 곳 있는싸홀 궤가 가지다가 俱夷를 만나
시니 곳 닐굽 즐기를 가져 겨샤티 王ᄃ出승을 저쓰바 瓶소배 마초
아뒀더시니(月釋 1, 9)

구이는 선혜와 함께 전책에서 아주 높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 언제나 ‘시’가 쓰인다. 그러므로 ‘저쓰바’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동조왕)이 더욱 높은 존재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보듯 왕은 화자에게 전혀 높임을 받지 못한다.

(22) 그 저깃 燈照王이 普光佛을 請ᄃ수바 供養호리라ᄃ야 나라히 出
승호티 도홀 고즈란 꼭디말오 다 王의 가져오라(月釋 1, 9)

이글은 동조왕의 행동에 대해 주체높임의 ‘시’를 전혀 쓰지 않았다. 그렇다면 (10)의 ‘저쓰바’는 왜 쓰인 것인가.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 왕은 구이보다 훨씬 높은 인물일 것이다. 또한 왕이 꽃을 구하는 이유가 보광불을 받들려는 의도 때문이다. 즉, 왕은 불교에 호의적인 인물 내지 신자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이나 왕은 모두 화자에게 거리가 가까운 인물이다. 이럴때 화자는 객관적 기준 혹은 주체의 의도를 존중하기 때문에 ‘저쓰바’가 쓰인 것이다. 그에 비해 위 (20)의 예문은 나라, 마왕이 호의적

인물도 아닐 뿐더러 객체와 별로 관련이 없는 인물로서 화자도 의도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서술했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3) 長者 | …세홀드려 드러오라 하야 뜰헤 안치옵고 묻즈보티 이 쓰리 너희 중가 고과 比丘와 對答호샤티 眞實로 우리 중이니다(月釋 8, 94)

예문(23)도 위 (20)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위 ‘습’ 사용의 두축중(1)로 서술한 이유는 장자가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변인물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왕(사라수왕), 리쿠 등을 높여 거꾸로 서술한 것이다.

(24) 俱夷니르샤티 大關에 보내스바 부텃기 받즈뵤 고지라 묻호리라. 善慧니르샤티 五百銀 도노로 다웃출기롤 사아저라 俱夷 묻즈뵤샤티 므스케 쓰시리 善慧 對答호샤티 부텃기 받즈보리라 俱夷 또 묻즈뵤샤티 부텃기 받즈바 므슴호려 호시느니…(俱夷니르샤티…하야 니르샤티(月釋序: 9-11)¹³⁾

예문 (24)에서도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구이와 선혜는 모두 불교에서 높은 대우를 받을 인물이며 화자도 역시 이들을 높게 대우한다. 그런데 구이에 관한 한 ‘니르샤티, 묻즈뵤샤티’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객체인 선혜를 화자가 높게 대우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같은 관점에서 주체의 의도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꼭 불교적인 인물과 관계된 것만은 아니다. 다음의 예가 그 것이다. 즉, 객관적 상황이 참작되는 기술은 석가와 그 가족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25) 부베 摩耶의 슬브샤티…내 이제 느려가면 아니 오라아 涅槃호리

13) 여기서 서로 혼용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월인석보 안에서 원래 월인천강지곡이었는지 석보상절이었는지에 따라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책을 근거로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 慈命을 받즈바 더욱 사랑호물너비하야 僧祐道宣 두 律師 | 各各 講說 2로니 잇거늘 시러보더 詳略이 혼가지 아니어늘(月釋序, 11-2) 참조.

이다 摩耶] 우르시고 揭지서 습분시놀(釋詳 11, 12)

예문 (25)에서는 서로 ‘습분샤터’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둘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높인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만일 그렇다면 오히려 둘다 ‘니르샤터’로 연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이송녕, 1964 : 341). 여기에는 주체높임만이 있을 뿐 주체와 객체와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도 우리는 화자의 주관적 서술, 객관적 서술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즉, , 완전히 주관적으로만 서술한다면 위의 예는 ‘니르샤터—습분시놀’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무리 해도 부처는 불서에서는 절대 높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처 혹은 세존은 그 이전의 부처가 아니면 ‘습’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위와 같은 가족관계다. 물론 가족이라고 모두 그러는 것은 아니다. 야수나 라후라에게는 ‘습’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처와 부모와의 서술에서는 예외없이 ‘습’과 ‘시’가 같이 연결된다. 다시 위 예문(25)로 돌아가 보자. 이예는 한번은 부처가 높고 한번은 마야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자식’의 관계는 아무리 해도 부인될 수 없는 객관적 높낮이가 있다. 그 높낮이가 나타난 것이 곧 (25)인 것이다. 즉, 화자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부처가 더욱 높이 대우되어야 하지만 실제적 관계는 아무래도 마야가 부처보다 위인 것 때문에 양쪽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것도 물론 부처의 의도를 중시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으나 마야는 불교에 호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이로써 우리는 ‘습’ 사용의 두축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두축은 서로 상보적인 것이 아니라, 화자가 불교적인 인물과 주변인물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술할 때 쓰이는 주관적인 축이 (1)이고, 불교적인 인물들 사이나 그 가족간의 관계처럼 상하가 적어도 불교에서는 분명할 때 주체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쓰는 객관적인 축이 (2)라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이건 화자의 높이려는 의향은 전제되어야 한다.

4. 맺 음 말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높임법은 그 기본성격상 화용적인 현상이다.

나. ‘습’이 쓰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은 화자가 자기나 주체보다 객체가 높다고 판단할 때와 객체가 주어 보다 높고 자기보다 낮더라도 객체를 높게 대우해 줄 때이다.

다. 앞의 축이 기준이 되는 것은 화자가 주관적으로 서술할 때이고, 반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할 때는 뒤의 축이 기준이 된다.

라. 객관적 서술은 화자가 등장인물들이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 많고 주관적 서술은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에 많다.

그러나 이로써 ‘습’에 관한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쓰고자 했던 것은 단지 ‘습’의 사용에 관계된 화자의 판단 태도의 문제였을 뿐이다. 즉, 높임법에 대해 화용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세워 본 것이다. 앞으로 많은 예를 보충하여 상황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형규(1947), “경양사의 연구,” 한글 102호.
 (1960), “경양사와 ‘가’주격토문제,” 한글 126호.
 (1962), “경양사 문제의 재론,” 한글 129호.
 안병희(1961), “주체겸양법의 접미사 ‘-습-’에 대하여,” 진단학보 22호.
 (1982), “중세국어 겸양법 연구에 대한 반성,” 국어학 11.
 이승녕(1962), “겸양법 연구,” 아세아연구 5권 2호,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1964), “경어법연구,” 진단학보 25·26·27합번호.

- 이익섭(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 전재관(1958), “‘습따위’ 경양사의 산고,” 경북대 논문집 2.
- 허 응(1954), “존대법사,” 성균학보 1.
- (1961), “서기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호.
- (1962), “존대법의 문제를 다시 논함,” 한글 130호.
- (1963), “또 다시 존대법의 문제를 논함—이승녕 박사에 대하여—,” 한글 131호.
-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